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본격 착수

전북도, 루미컴 주식회사 등 10개사 '글로벌 IP기업' 선정...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

국내 중소 의류기기 제조업체 A사는 미국에서 제품을 활발히 판매하던 중, 특허관리전문회사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피소를 당했다.

A사는 B사의 고액 합의금 요구 및 특허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도가 수출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기 전에 중소 기술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해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글로벌 기술경쟁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글로벌 IP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이번 글로벌 IP기업 인증식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의 주관 및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전북지식재산센터장, 그리고 2017년 전북 글로벌 IP기업으로 선정된 10개 업체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IP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는 IP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전북 소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글로벌 IP기업을 선정, 수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3년간 종합지원을 한다.

이번 선정된 글로벌 IP기업은 지난 2월까지 전북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세월호 리프팅 빔 인양 와이어 제거 27일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수습 인근 반 잠수선에 실린 세월호에서 78mm 리프팅 빔 인양 와이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0개사의 접수 받아 서류 및 현장 실사, 발표평가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해 루미컴 주식회사를 포함 10개사가 선정됐다.

그리고 2017년 글로벌 IP기업 10개사와 2015년, 2016년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3년차 18개사를 대상으로 IP관련 지원사업(해외권리화, 선택형 IP, 특허 맵, 특허&디자인 융합, 비영리 브랜드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전북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비롯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 유일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이며, 지재권이 취약한 영세 기업 및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으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북지

역 중소기업들이 전북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고, IP 경영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IP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비롯해 과거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총 28개사에 대해 체계적인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IP역량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매출확대,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제19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 30일 마감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인 5월 4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으로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및 여행객 등이다.

국외부재자신고는 관할 구·시·군 의 장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익산 황등면 육용종계농가 H5항원 양성

익산 황등면 육용종계 농가에서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익산시 황등면의 한 육용종계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H5항원이 검출됐다.

약1만8,000마리를 사육중인 이 농가는 출하 전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전날인 26일부터 폐사 등 AI의심증상이 나타났다.

이 농가는 지난 17일 AI가 발생한 익산 함열읍 산탄계 농가에서 3.3km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가 기준 반경 10km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 및 임상소독,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가금의 출하 전 및 폐사체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삼락농정위 농민정책분과 회의 개최

전북도는 농민정책 수립 및 정책제안을 위해 27일 삼락농정위원회 농민정책분과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구성된 전북 농정 거버넌스로 지난 2월 24일 제2기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위원회 농민정책분과'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도 수석분과로서 제1기 농민정책분과(2015~2016년)에서

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민기 공동급식' 등 삼락농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제2기 '위원회 농민정책분과'는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직불금 개편', '농정관련 대선외제', '청년농업인육성' 등 분과 주제에 대한 위원별 검토보고와 '토종종자 지원', '귀농귀촌 쉼터 하우스' 등 위원별 정책보고도 가졌다. /인재용 기자

도, 맞춤형 금융교육 2회 실시

전북도가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중 최초로 지난해 금융교육을 개설한데 이어 올해도 관내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

올 상반기 교육은 도 경제산업국과 시·군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일간 진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직무분야로 전북금융산업육성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이해, 금융시스템과 금융감독제도,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전라북도 상생발전 방안,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이 편성됐고, 소양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 재테크전략을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시·군-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으로 678대 대상... 위법시 행정처분

전북도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도,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총 678대로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 유효기간(1년) 초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37대,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가 489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

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시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이다.

특히,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 정지 표시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검사 불합격,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운행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는 등 도민의 생활 속 안전사고와 밀접한 승강기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자동차융합기술원, 아이디어 세미나 개최

전북도 산하 연구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7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도내 자동차, 뿌리, 특장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이하 지아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CEO와 전문가로부터 산업 일선의 목소리와 우수 사례 및 실패 사례를 듣고, 토론을 통해 지역의 자동차·

부품·뿌리·특장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들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내 특장차 분야의 수출입망 중소기업인 진우에스씨의 이준호 대표의 '특장차 수출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